

## 정지통신기상위성의 한·일 공동개발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김두환

아주대학교 우주통신·위치정보연구센터

최근(2000년)에 정부에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기본계획의 위성체 분야에서 7기의 정지위성을 발사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5기는 한국통신(KT)이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통신·방송위성이며, 나머지 2기는 통신방송기상위성으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궤도의 과학위성 및 다목적실용위성을 국제협력으로 공동개발해서 발사한 경험이 있으며, 정지궤도의 통신방송위성은 KT가 미국의 위성을 구매해서 외국 로켓으로 발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정지통신기상위성을 개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1단계에서는 국제협력으로 공동개발해서 정지위성의 기술축적과 운용 know-how를 터득한 후에, 다음 단계에서 독자적인 국산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개발분야의 국제협력에는 통례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각국마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기술수준과 과학정책이 다르고, 특히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제우주협력 분야는 한번 시작하면 단기성·일과성으로 끝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수행하게 될 국제협력사업의 기대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및 추진전략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